

멧돼지 출몰 증가하는 계절 '노심초사'

서귀포시 올해 포획만 78마리... 작년 10마리서 급증 신고 민원 해마다 늘고 출몰 해발고도 점점 낮아져 가을과 겨울철 농작물에 큰 피해 입혀 농가들 걱정

서귀포시 중산간 지역에서 가을·겨울철 멧돼지가 자주 출몰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최근엔 고근산 일대에서 멧돼지 출몰 신고가 자주 접수돼 탐방객과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행여 멧돼지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가운데 올해 서귀포시 멧돼지 포획단에서 잡은 멧돼지도 크게 증가해 번식력이 활발한 멧돼지 개체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 위탁을 받은 멧돼지 포획단에서 올해 8월까지 78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했다. 적극적인 포획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유해조수단 염사 등 9명으로 멧돼지 포획단을 꾸려 정기적인 포획과 민원에 대응한 영향이다. 작년까지는 멧돼지 출몰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에 위탁해 포획에 나서면서 2017년 11마리, 2018년 10마리를 포획하는데 그쳤다.

에 그쳤던 것이 2017년 24건, 2018년 69건에서 올해는 7월까지 25건이 접수됐다. 통상적으로 멧돼지들이 9월 이후쯤부터 먹이를 찾아 저지대로 내려와 중산간의 감자, 고구마, 감귤밭을 파헤치고 있어 앞으로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서귀포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간대 고근산 북서쪽 인근에 위치한 집앞 고구마밭에 멧돼지가 침입했다는 신고가 두 차례 접수돼 포획단이 출동해 1마리를 포획하기도 했다. 신고가 접수된 고근산 일원에서는 이달 말까지 경찰에 총기해제 관련 협조를 얻어 멧돼지 야간포획도 이뤄지고 있다.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시

도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16년 6건

다. 또 8월에는 서귀포경찰서에 야간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서귀포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본격화

어제 시-제주대 업무협약식 의료기능 강화 추진단 출범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이 본격화된다.

서귀포시와 제주대학교는 18일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대회의실에서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에 상호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단도 출범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농림식품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소방안전본부, 응급의료센터,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관계자 등 4개 분과, 23명으로 구성돼 의료 접근성이 부족한 서귀포지역 응급의료 체계 및 공공보건으로 기능 강화에 주력하게 된다. 시는 사업의 총괄 조정과 정부-도-서귀포시간 상시적 소통창구 역할을 맡는다.

지난 4월 서귀포시가 선정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인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은 2021년까지 3년간 총 18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와 제주대학교는 18일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대회의실에서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에 상호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 공모 제주시 내달 4일까지 접수

제주시는 2020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조식을 10월 4일까지 신청받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한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공모중에 있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으로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단체가 해당된다.

사업 희망자는 다음달 4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주시 농정과에 제출하면 제주도의 적격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는 12월 초 대상조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시설비 등에 대해 연간 6000만원의 사업비(국비 70%, 지방비 3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1일 서귀포 복지박람회

제10회 서귀포시 희망복지 박람회가 오는 21일 '함께 이루고 함께 누리는 포용적 복지공동체'를 주제로 제주월드컵경기장 야외광장에서 개최된다.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희망복지 박람회는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눔·기부문화의 확산과 지역내 사회복지 기관·단체, 시설의 사업 안내를 통해 주민들에게 사회 복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보를 제공해 지역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

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관람객 참여형 도전 골든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 야외광장에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 자활센터 등 28개 기관·단체·시설에서 나눔장터와, 체험부스 등을 운영한다. 특히, 행복나눔 푸드마켓에서는 지난 6일부터 각종 생활용품, 답례품 등 기부물품을 접수받고 있다.

수익금은 서귀포시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2019 제주애 빠지다 ①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인 '호감'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선희·오기태 복지사, 안원식 관장, 박상철 팀장. 고대로그자

"사진 배우며 소통의 시간 가져요"

원주민·이주민 동행으로 출사 참여하며 문화교류 함께 지역 배우는 기회도 축제·행사엔 전시회 개최

"스마트폰 카메라로 같이 촬영을 다니다보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지역 구석구석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박상철 팀장의 말이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사업인 '호감'을 통해 지역주민과 이주민 간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다.

'호감'은 스마트폰 사진 교육과 스마트폰 사진 촬영, 사진 전시회로 이뤄지고 있다.

'호감' 참가자들은 지난 5월 개강식을 시작으로 환경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고 있다.

스마트폰 사진 교육은 환경면고산리에 있는 '느린 사진관' 대 표인 홍혜연 사진작가가 맡고 있다. 흥 작가는 사진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촬영기술을 높여주고 더욱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

홍 대표는 "스마트폰 카메라는 고급·고성능의 카메라에 비해서 정밀함이 부족하고 화질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기존 고급 카메라가 갖지 못한 휴대성과 간편함, 네트워크 접속의 용이함, 다루기가 편한 장점이

있다"며 "출사 참여자들은 이제 전문가 못지 않은 사진을 찍고 있다"고 했다.

박상철 팀장은 "현재 환경 주민 10여명이 출사에 참여하고 있고 3개조로 나눠 촬영을 나가는데 각 조마다 이주민 3명과 원주민 1명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들이 용기충기 모여 사진을 촬영하러 다니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고 있다.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배우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기태 사회복지사는 "바쁜 시간을 쪼개어 출사를 나온 이들은 세상에 단 한 장 밖에 없을 자신의 사진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출사는 지역주민과 이주민들에게 좋은 소통의 시간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1년에 두 번 전시회를 갖고 스마트폰으로 담은 세상을 선보이고 있다.

안원식 관장은 "사진 전시회는 환경면 지역 축제나 행사가 열릴 때 하고 있고 오는 10월에 두 번째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이주민 간 문화교류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이외에도 환경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안정망 강화를 위한 청소년재능기부 프로젝트, 위기·방임 아동지원 사업, 한부모가정을 위한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환경지역 어르신 대상 '우리동네 문화발전소-작은 콘서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양배추·브로콜리 무우 양파 배추 → 희소식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양배추·브로콜리 양파배추 (500㎖당 500배 희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독: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 1차 살포: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 효과: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2차 살포: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 효과: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
무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 효과: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마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독: 파종전 침치 또는 적시어 파종 1차 살포: 멀칭전 살충제 혼용살포 2차 살포: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효과: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곰팡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록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잡초의 경감
- 높은 저장성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페르카
- 강력한 라임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 뿌리혹병의 경감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련 염분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